

교회 사역에 여성이 서는 것을 반대하는 논증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

벤 위더링턴 3세(Ben Witherington III) ·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 2021년 4월 · 2026년 10월 개정

벤 위더링턴 3세는 애즈버리 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 켄터키주 윌모어)의 Amos Professor of New Testament for Doctoral Studies이며,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의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잉글랜드 더럼 대학교에서 C. K. 바렛(C. K. Barrett)의 지도 아래 신약성경의 여성에 관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 출판한 학술서 세 권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이 일을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시 여성 사역 문제를 두고, 특히 강단에 서는 여성 설교자와 담임목사로서의 여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담임목사”나 “강단 설교자” 같은 범주가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신약성경은 사역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거듭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해의 연구와 공부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거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물론 똑같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 차이는 성경 본문에 대한 탄탄한 주해에 근거해야 하며, 감정이나 수사, 단순한 교회 규정, 의심스러운 해석학 같은 것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저는 여성이 영적인 사역이나 직분을 맡는 것에 대한 흔한 반론들을 하나씩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반론 가운데 어떤 것은 고교회 전통에서, 어떤 것은 오히려 저교회(“low church”) 전통에서 나옵니다. 어떤 것은 가톨릭이나 정교회의 것이고, 어떤 것은 개신교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짐없이 다루거나 지루하게 만들려 하지 않고, 이 모든 반론 가운데 몇 가지를 골라 살펴보겠습니다.

1)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다. 미사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등의 일을 하는 사제는 남자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증의 근본 문제는, 신약성경이 사도, 선지자, 교사, 전도자, 장로, 집사가 신약에서 결코 사제가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별도의 사제 계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제사장과 성전과 제물로 이루어진 구약의 제사 제도 전체를 쓸모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듣는 제사장직은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1.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여기에는 당연히 여성도 포함됩니다.
2. 그리스도의 하늘 대제사장직(히브리서를 보십시오).

이 둘 사이에 구약에서 넘어왔거나 신약 시대에 새로 도입된 새로운 제사장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와 성전에 관한 모든 언어가 신약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바뀌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여러 곳(고린도전서 3-6장 참조)에서 성전은 신자의 몸이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전체로

묘사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석학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에, 대략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아래에서 공인된 종교가 되었을 무렵, 구약적인 해석학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성찬을 제사로, 직분자를 사제로, 주의 날을 안식일로 보는 해석학이었습니다. 이로써 새 언약의 새로움과 그 여러 면모와 특징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그 최종 결과는 여러 직분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신약성경의 저자들이라면 단호히 거부했을 이유로 말입니다.**

2)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 남편을 포함한 남성들의 머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으며, 신약성경의 가정 규범(가정 규제)을 어기는 것이다.

이 논증은 흔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서 이 논증은 신약성경이 육신의 가족과 가정의 질서에 대해 말하는 것과, 믿음의 가족이 어디에서 모이든 그 믿음의 가족의 질서에 대해 말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3-4장, 에베소서 5-6장,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다른 본문들이 육신의 가족 구조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제가 자세히 논증했듯이, 신약성경의 세계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안에 있는 것과 신약성경 밖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바울과 다른 이들이 기존의 구조를 더 그리스도인다운 방향으로 바꾸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청중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여, 그들이 변화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들에 머리와 복종에 관한 말이 분명히 나오기는 하지만, 그 논증이 겨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에게 점점 더 엄격한 규칙을 부과하여, 그의 권력과 그가 아내와 자녀와 종들을 대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
2. 아내와 자녀와 종들이 가족이나 재산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격체라는 것을 가장이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은 빌레몬서에서 특히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를 놓아주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누룩을 이미 존재하는 관계들 속에 넣어 그 관계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에베소서 5:21 이하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한 형태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는 권면도 그 본래의 모습대로, 곧 자기를 희생하는 복종과 섬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복종은 더 이상 한쪽 성에만 해당하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존 질서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 가는 윤리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에 대한 저의 주석, Eerdmans를 보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의 지도 구조를 결정하는 것 또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 성별이 아니라 은사, 곧 성령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과 같지 않으며, 성별은 그 안에서 역할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물론 성별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몇몇 역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 구조를 논의할 때는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에서조차 여성 교사, 여성 전도자, 여선지자, 여성 집사, 여성 사도의 예를 발견한다 해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기존의 타락한 가부장적 질서에 세례를**

주어 그것을 승인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시 가운데 하나는 그가 세례에 대해 하는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옛 언약의 표징과 달리, 새 언약을 위해 우리가 받은 성별에 따른 표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언약의 표징이 바뀌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한 언약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3) 여성은 그리스도인 설교자가 될 수 없다. 신약성경의 어떤 본문들이 그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우 보수적인 개신교인들(복음주의자, “형제단”)에게는 여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4:33하-36과 디모데전서 2:8-15가 여성에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저는 이런 논증들 가운데 몇몇의 위선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논증들은 이런 식으로 미세한 구분을 합니다. “여성이 집에서 가르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 건물에서는 안 된다”(잠깐 덧붙이자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더 심한 것은 이런 말입니다. “여성이 필요한 선교지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필요하지 않은 여기 미국에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그 논리는 완전히 엉뚱하며, 성경에 전혀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4:33하-36은(이것이 이 서신의 본래 부분이라는 전제에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본문 비평적인 이유로 이를 의심하지만, 저는 의심하는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서신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가정 교회들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바로잡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몇몇 여성들, 보아하니 몇몇 아내들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던져 예언(예언의 말)의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성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광”(곧 머리카락)을 가리도록 머리를 덮어야 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4:33하-36에서 이 허락을 거두어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는 예언에 대해, 그리고 선지자나 여선지자에게 다가갈 때 무엇이 합당한지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델포이의 신탁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해야 할까요? 이 땅을 사야 할까요? 등등. 그러면 신탁이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선지자들이 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예배 시간은 질문과 대답의 시간이 아니며, 여러분은 선지자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집에서 여러분의 남자(아마도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그런 질문을 위한 때와 장소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이 경우에 여성들/아내들을 바로잡는 것은 그들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경우에 그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 주목해야 할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요구는, 율법도 말하는 것처럼 이 여성들이 조용히 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 어디에 여성은 조용히 하고 남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경에도 전혀 없고,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선지자들과 여선지자들을 통해 오는 그분의 영감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니라(그리고 귀 기울일지니라)” ...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할지니라.**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2:8-15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때때로, 부당하게도, 여성이 영적 사역에 설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문맥과 본문의 세밀한 점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 생기는 주된 문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아마도 에베소에서, 새로 회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시하고 있습니다(목회 서신에 대한 저의 주석, Letters and Homilies for Hellenized Christians, 제1권, IVP를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8-15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분명히 특정한 여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곧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머리 모양을 하고서, 곧바로 교회의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높은 신분의 여성들입니다. 이것이 다시 문제를 다루는 교정의 단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기도해야 할 남자들이 분노하며 다투는 것을 바로잡고, 그다음에 이 높은 신분의 여성들을 바로잡습니다. 바울은 남자든 여자든 잘못에 빠져 있으면 똑같이 바로잡습니다. 그가 여성들을 바로잡는 것과 관련해서는 에베소 같은 도시의 높은 신분의 여성들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여성들이 그리스-로마의 종교 축제와 신전과 제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여사제, 여선지자, 여성 교사, 여성 치유자, 꺼지지 않는 불의 수호자 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여성들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뒤에 교회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니다. 그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원칙입니다. 저에게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신학교의 한 과목에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답답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을 그는 쓸데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강단에 올라가면 되고,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찰리,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다만 성령께서 일하실 재료를 자네가 더 많이 드리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네!” 본질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의 이 여성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8-15의 주해에 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여성이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헬라어는 충분히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잠잠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조용함”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요점은 그들이 디모데와 다른 이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필 페인(Phil Payne)이 거듭 보여 주었듯이, “내가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이 허락하지 않음을 무기한으로 늘리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를 뜻합니다. “나는 현재 허락하지 않는다 ...”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본문이므로, 헬라어는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나는 여자들이(이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머리 모양과 장신구와 값비싼 옷을 갖춘 여자들이) 가르치거나 (권위를 부여받은) 남자들 위에 권위를 가로채는 것을 현재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베푸는 특권을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나중에 허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목회 서신의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성들에 대해 듣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 **authenteo**는 드문 동사로서, 권위를 행사한다는 뜻이거나 권위를 가로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언어를 그보다 큰 문맥, 이 경우에는 헬라어의 다른 곳에서 쓰인 용례라는 문맥과 떼어서 연구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 주는 좋은 예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동사는 교정의 문맥에서 권력의 남용, 곧 다른 사람이 가진 역할이나 기능을 가로채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 이야기, 곧 하와의 이야기에서 끌어온 논증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의 청중 가운데 몇몇이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직 아담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금지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이 주어질 때 하와는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하와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담의 의무였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하와가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본래의 금지 명령에 없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았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오직 하와와 타락과 관련해서만 사용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쉽게 속고, 파멸을 가져오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와는 에베소의 높은 신분의 여성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완벽한 예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때 아담은 하와 바로 곁에 있었고 하와를 막을 수 있었고 또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열매를 뺏고, 아담은 그 순간 책임을 진 교사로서 실패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으로 마서 5:12-21에서 아담에게 타락의 책임을 묻는 이유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는 어쩌면 “여자들은 해산을 거치는 동안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결코 하지 않는 일은, 여성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시한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해산 앞에 붙은 정관사가 특정한 출산, 곧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킨다는 해석에 기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하와와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하와와 달리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의 여종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여성에게 지워진 저주(해산의 고통과 위험)가,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되돌려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이 본문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여성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금지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은 오늘날 먼저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려는 여자나 남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저자는 가부장제가 타락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하와에게 내린 본래의 저주(본래의 축복이 아니라)에 이것이 속한다고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탐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관계에 미친 영향이지, 타고난 성별의 특성이나 관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 목회 서신의 이 본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때때로 이런 논증을 듣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장로들이 자신의 한 아내에게 신실한 남자들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남자들만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증은 바울이 선교사로서, 에베소에서든 그레데에서든 강하게 가부장적인 문화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그의 원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고 그가 바라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복음의 누룩이 온전히 작용하여 일을 안에서부터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그 문화에 이미 있는 남성 지도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가 이 아주 새로운 교회들에서 먼저 남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 회심한 사람들은 먼저 여성들도 그런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랑으로 설득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미 그 방향으로 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1-2에서 그는 고린도 지역 교회들의 여성 집사인 뵈뵈라는 지도적인 여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이 장로와 집사에 대해 말하는 곳에서도 아마 여성 집사들이 언급되고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바울이 하는 말을 평가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그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읽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각 상황에 적용하면서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가?

제가 여러 해에 걸쳐 배운 것처럼 ..., 교회의 문제는 강하고 은사 많은 여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여성들을 얻을 수 있는 대로 모두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많은 교회가 벌써 오래전에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저는 바부슈카들, 곧 모스크바 침례교회의 할머니들을 만났던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스탈린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스탈린이 교회를 닫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교회 안의 강하고 은사 많은 여성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강한 여성들이 아니라 약한 남성들입니다. 그들은 강한 여성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의심스러운 주해를 포함한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그 여성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 해 왔습니다.**

이 방향으로 더 알고 싶은 분은 저의 주석들이나 평신도를 위한 저의 요약본 *Women and the Genesis of Christianit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를 읽어 보십시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원문: “Why Arguments against Women in Ministry Aren’t Biblical”, 블로그 “The Bible and Culture”(Patheos), 2015년 6월 2일.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벤 위더링턴의 허락을 받아), 2021년 4월 20일.